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간 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 남 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모형(Leary & Kowalski, 1995; Schlenker & Leary, 1982)의 자기제시 동기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대인간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높게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였다. 대학생 피험자들은 자기제시 동기 척도에 의해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대인간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평가조건)과 그렇지 않은 상황(통제조건)에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평가조건에서 통제조건에 비해 사회불안의 정서적 반응을 반영하는 상태불안 점수가 더 높았으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불안의 행동 측정치인 발언시간, 발언속도 및 이야기의 내용 적절성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사회불안을 인지적-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는 관점에 따르면, 본 연구 결과는 자기제시 모형이 가정한 대로 자기제시 동기 요인이 사회불안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사회불안, 자기제시 모형, 자기제시 동기, 대인간 평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남 재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19
FAX 02-901-8301 / E-mail : kimnj@duksung.ac.kr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나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이란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한 견해는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사회불안을 경험하지만 회피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에 사회불안이라고 하고, 회피행동을 포함하는 경우에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다(Neal & Edelman, 2003). 다른 견해는 양적인 구분으로서, 정도가 약한 경우에 사회불안이라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다(Leary & Kowalski, 1995b; Rapee, 1995).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을 양적인 차이로 보는 Leary와 Kowalski(1995b) 및 Rapee(1995)의 입장을 따른다. 사람들은 사회불안을 매우 높게 느끼는 사회 상황을 회피할 것이다. 따라서 회피행동이 수반된 사회공포증은 정도가 심한 사회불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공포증은 일반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이다(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그럼에도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포증은 다른 불안장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다(Liebowitz, Gorman, Fyer, & Klein, 1985). 사회공포증은 1980년에 와서야 비로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포함되었다(Rapee, 1995).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에 대한 연구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의 원인으로 인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Clark & Wells, 1995; Heinrichs & Hofman, 2001; Leary & Kowalski, 1995a, 1995b; 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

과 사회공포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이론으로, Clark와 Wells(1995)의 인지적 모형(cognitive model)과 Leary와 Kowalski(1995a, 1995b)의 자기제시 모형(self-presentation model)이 있다. 최근에 나온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이 두 인지적 모형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많았다.

Clark와 Wells(1995)의 인지적 모형에 따르면, 사회공포증 집단은 사회상황을 위협한 것으로 지각하도록 만드는 가정(assumption)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상황에서 이 가정들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위협을 지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반응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불안반응과 이에 대한 대처전략은 지각된 위협과 불안의 또 다른 원천이 되어, 사회불안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키도록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회불안을 발생하거나 유지시키는 주 요인은 사회불안 집단이 가진 가정, 또는 역기능적 신념(dysfunctional belief)이다. Clark와 Wells(1995)는 역기능적 신념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불안을 유지시키는 과정으로, 자기초점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 안전행동(safety behavior) 등을 포함하여 네 가지 과정을 들었다. 이 과정들 중 자기초점적 주의에 대해 특히 많은 후속연구들이 있었다(Spurr & Stopa, 2002 개관).

자기제시 모형(Leary & Kowalski, 1995a, 1995b; Schlenker & Leary, 1982)은 사회불안이 자기제시 동기(self-presentational motivation)와 자기제시 기대(self-presentational expectancies), 이 두 요인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자기제시 동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적한 인상을 주어야겠다는 동기이며, 자기제시 기대는 자기가 그런 인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목적한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그 일에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지 못할 때 사회불안이 생긴다(Leary & Kowalski, 1995a; Schlenker & Leary, 1982). 즉 자기제시 동기는 높는데 자기제시 기대가 부정적일 경우에,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Clark와 Wells(1995)의 인지적 모형과 Leary 등의 자기제시 모형은 모두 사회불안 집단은 사회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도록 하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제시 모형에서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강조된 자기제시 기대는, Clark와 Wells(1995)의 인지적 모형에서 말한 사회적 위협을 지각하도록 하는 역기능적 신념에 상응한다고 하겠다. 두 모형의 주요한 차이는 자기제시 모형에서 자기제시 동기를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가정한 것이다. Clark와 Wells(1995)의 인지적 모형이 인지적 요소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에, 자기제시 모형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인지 요인과 동기 요인을 아울러 고려한다. 동기 요인의 포함 여부가 두 모형의 주요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Clark와 Wells(1995)의 인지적 모형은 사회불안을 발생하거나 유지시키는 주 요인으로, 사회불안 집단이 가진 역기능적 신념을 가정한다. 역기능적 신념은 사회불안 집단의 인지적 특성으로서, 성향적(dispositional) 변인으로 볼 수 있다. Clark와 Wells(1995)의 인지적 모형은 사회불안 집단의 성향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기제시 모형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성향적 변인들과 상황적(situational)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한다(Leary & Kowalski, 1995a). 자기제시 모형은 어떤 개인이 특정한 사회상황에서 경험하는 상황적 사회불안(situational social anxiety)을 예언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즉, 자기제시 모형은 개인의 성향과 상황적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상황적 사회불안을 잘

예언할 수 있다.

자기제시 모형은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사회불안에 관련된 많은 인지적 특성들을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로 경제성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모형이다(Leary & Kowalski, 1995b). 공적 자기자각(public self-awareness), 상대하는 사람 수, 평가의 현저성 등 평가 결과의 가치나 중요성, 자기상(self-image)이나 자존심(self-esteem), 인정추구 등은 모두 자기제시 동기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Leary & Kowalski, 1995a). 한편, 사회상황의 친숙도나 상대방의 특성, 자신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평가를 포함한 자기평가(self-evaluation) 등은 자기제시 기대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Leary & Kowalski, 1995a).

자기제시 모형은 사회불안에 관련된 성향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공적 자기의식에 있어서, 성향적인 공적 자기의식은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의 예이며, 공적 자기의식을 높게 하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것은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의 예이다. 평가가 현저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비교는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요인 변인의 예가 된다. 부정적 자기평가, 자신의 외모나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성향적 자기제시 기대 요인의 예이다. 상대하는 사람의 특성은 특정 상황에서의 자기제시 기대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자기제시 기대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사회불안 현상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향과 상황적 변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인지적 모형과 비교할 때, 자기제시 모형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제시 동기를 사회불안의 주요한 요인으로 강조한 점이다. Clark와 Wells(1995)가 사회불안의 유지에 기여하는 과정

으로 설명한 자기초점적 주의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바람직한 인상을 제시하겠다는 동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자기제시 동기 요인에 대한 고찰은 사회불안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에서 자기제시 기대 요인에 관련된 연구들은 많은데 비해, 자기제시 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Leary와 Kowalski(1995a)는 자기제시 모형의 증거로 자기제시 기대를 검증한 연구들은 많이 개관하였으나, 자기제시 동기를 검증한 연구들은 별로 개관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시 모형에서 가정한 사회불안의 두 요인 중 자기제시 동기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제시모형의 자기제시 동기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와 상황적 특성의 상호작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자기제시 모형에 의하면, 대인간 평가(interpersonal evaluation)의 현저성은 자기제시 동기의 상황적 변인에 해당한다. 대인간 평가가 명시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아질 것이므로, 대인간 평가가 명시적이지 않은 상황에 비해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Leary & Kowalski, 1995a). 실제로 사람들은 평가가 명시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 예로, 자기 직장 상사와의 일상적인 만남의 경우보다는 승진을 위한 면접시험 상황에서 더 큰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면접상황은 평가가 명시적인 상황이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기 쉽다.

그런데 대인간 평가가 명시적인 상황에서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의 변화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명시

적 평가 상황에서 평가자에게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려는 욕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명시적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즉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명시적 평가 상황에서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명시적 평가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Leary와 Kowalski(1995a)에 의하면, 자기제시 동기는 특히 자기정체성(self-identity)에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측면을 제시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더 높아진다. 자기개념(self-concept)이나 자존심(self-esteem)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자기제시의 주된 동기는 자존심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Leary & Kowalski, 1990; Schlenker & Weigold, 1992). 예를 들어, '지적이다'라는 구성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용감성을 보여야 하는 상황보다는, 지적임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더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인간 평가 여부를 조작하여 자기제시 동기를 높이도록 하는 실험처치에서 이런 점을 활용하려고 한다. 본 실험에서 우선 자신을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고, 자신이 독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험자로 선정할 것이다. 이런 피험자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제시에 상대적으로 더 열중할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지표로서, 자기보고된 주관적 불안감이나 시선, 발언시간, 사회적 행동 수행 등의 행동 측정치를 사용하였다(DePaulo,

Epstein, & LeMay, 1990; Mahone, Bruch, & Heimberg, 1993; Stopa & Clark, 1993; Woody, 1996). 이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자기보고된 상태불안과 행동 측정치들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불안과 회피 등의 행동은 자주 관련되긴 하지만, 명확히 구별되는 현상이다(Beck & Emery, 1985). 주관적으로 불안을 느껴도 회피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주관적 불안이 없어도 사회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Leary 등은 행동적 반응과 분리하여 사회불안을 인지적·정서적 반응만으로 정의하였다(Leary, 1982; Leary & Kowalski, 1995a; Schlenker & Leary, 1982). Leitenberg(1990)도 사회불안을 사회 평가적 상황에서의 걱정, 자의식, 정서적 불안감등 인지적·정서적 반응으로 보았다. 사회불안을 인지적·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는 Leary 등의 입장에 따른다면 자기보고된 상태불안이 상황적 사회불안의 측정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될 것이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den & Wallace, 1991; DePaulo et al., 1990; Stopa & Clark, 1993). 선행연구들에서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지표로서 시선, 발언시간, 침묵시간, 목소리 크기 및 불안한 몸짓 등을 조사하였다(Alden, 1987; Burgio, Merluzzi, & Pryor, 1986; DePaulo et al., 1990). 그런데 이 행동 측정치들 중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차이를 보인 것은 발언시간이었다(Burgio et al., 1986; DePaulo et al., 1990).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언을 적게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Bruch, Gorsky, Collins, & Berger, 1989; Schlenker & Leary, 1985).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행동 측정치의 하나로써 발

언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사회불안의 다른 행동 측정치로 발언속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불안이 높아지면, 말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말을 더듬거나 발언하는 중에 휴지, 침묵 등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Burgio 등(1986)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을 높게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화하는 중에 망설임, 침묵 등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방어적 행동을 많이 한다(Meleshko & Alden, 1993). 자기방어적 행동에는 발언을 적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사회불안과 발언속도의 관계를 직접 조사한 선행연구가 발견되지 않아서, 사회불안과 발언속도의 관계를 명확히 예언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사회불안이 높아지면, 망설임, 침묵, 적은 양의 발언 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불안이 높아지면 일정한 시간 내에 하는 발언량이 적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언속도를 '단위시간당 발언한 단어수'로 정의하고, 사회불안이 높아지면, 발언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가정한다.

피험자들의 언어적 행동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발언 내용이 자기개방적이지 않으며, 생생하거나 독창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Alden & Wallace, 1995; DePaulo et al., 1990; Meleshko & Alden, 1993). 이 연구결과들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발언내용이 빈약하고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다른 행동 측정치로서, 피험자가 말한 이야기의 내용적 질성 평정치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간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는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피험자들은 자기제시 동

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대인간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제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자기보고된 상태불안, 발언시간, 발언속도 및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대인간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높게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로부터 나오는 다음의 예언들을 검증할 것이다.

예언1 :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통제조건에 비해 대인간 평가조건에서 상태불안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언2 :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통제조건에 비해 대인간 평가조건에서 발언시간이 더 짧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언3 :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통제조건에 비해 대인간 평가조건에서 발언속도가 더 느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언4 :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통제조건에 비해 대인간 평가조건에서 발언내용이 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서울 소재의 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과목 수업 시간에 346명의 학생들에게 자기제시 동기

척도, 대인관계 불안 척도 및 독립심 평가 질문지를 하나의 책자로 묶어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제시 동기 척도로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들(자기제시 동기 척도 97점 이상)과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들(자기제시 동기 척도 82점 이하)만을 선정하였다. 이 학생들 중에서 실험과제에 좀더 열중할 수 있는 피험자들을 추리기 위해, 비교적 자신을 독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고(11점 척도에서 6이상), 의존적이라고 보지 않으며(11점 척도 상에서 6이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정한(11점 척도에서 6이상) 학생들만을 가용피험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성향적 사회불안이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 각각 대인관계 불안 척도 점수가 유사한 피험자들을 할당하였다. 즉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가용피험자집단과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가용피험자집단에서, 대인관계 불안 점수가 거의 같은 피험자를 각각 1명씩 짝을 지어 뽑는 절차를 반복하여 피험자들을 선정하였다. 자기제시 동기 점수와 대인관계 불안 점수는 상관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대인관계 불안 점수가 중간 정도의 피험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의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의 평가조건과 통제조건에 들어갈 피험자들은 각각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여자대학생 80명(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 평가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통제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 평가조건 및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통제조건에 각 20명씩)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도구

자기제시 동기 척도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김남재(1998)가 개발한 자기제시동기 척도(Self-Presentational Motivational Scale; SPMS)를 사용하였다. 자기제시 동기 척도는 27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인관계 불안 척도

Leary(1983)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를 번안하여, 김남재(1995)가 개발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IAS는 15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태불안 척도

Spielberger(1983)의 상태 특성 불안 검사(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Y형(STAI-Y)을 한덕웅, 이장호 및 전검구(1996)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 Y형의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STAI-Y형 상태불안 척도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질문지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의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에 참여하는 그 당시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어느 정도 주고 싶은지, 그리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11점 척도(0에서 10까지)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는 두 항목에 평정한 값의 합으로 산출된다.

독립심 평가 질문지

이 질문지는 실험과제에 좀더 열중할 수 있는 피험자들을 선정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독립심 평가 질문지는 자신을 얼마나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을 얼마나 의존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각각 11점 척도(0에서 10까지)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

피험자들은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을 모두 끝마칠 때까지 실험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가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며, 실험자는 피험자가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인지, 낮은 집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먼저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실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본 연구는 “성격과 인상”에 관한 연구이며, 피험자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독립심이 강한”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더 “의존적인” 사람으로 응답한 학생들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때때로 경험담을 운색하거나 과장할 때가 있으며, 자기를 나타내는 이야기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과정이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및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라고 설명해주었다. 실험자는 자신을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앞에 말한 주제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험자가 할 실험과제를 설명하였다. 피험자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독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야기 두 가지와 자신이 의존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피험자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 두 가지(독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야기와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이야기 각각 한 가지씩)와 꾸민 이야기 두 가지(독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야기와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이야기 각각 한 가지씩)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네 가지 이야기는 피험자의 직접 경험한 일이거나, 피험자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피험자를 평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네 가지 이야기를 모두 가급적 생생하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실험자가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고 어떤 이야기가 꾸민 것인지 모르도록 이야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검토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험자의 이야기를 녹음하려 한다고 알려주고 피험자의 허락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대인간 평가를 조작하였다. 평가가 예상되는 조건에서는 실험자는 피험자가 한 네 가지 이야기에 대해 각각 의문점을 질문하고 각각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또는 꾸민 이야기인지를 평가할 것이며, 피험자가 제시한 전반적 인상을 나중에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즉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의문스러운 점을 찾았다가 당신이 네 가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나는 이야기 하나 하나에

대하여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보여준 당신의 행동에 의해서 당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여 지난번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학생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반면에 통제조건에서는 대인간 평가를 예상하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실험자는 가능한 길고 생생하게 네 가지 이야기를 말 하도록 피험자에게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피험자는 자신의 독립심이 강한 면을 보이는 이야기 두 가지와 자신의 의존적인 면을 보이는 이야기 두 가지를 순서에 관계없이 이야기하였다. 평가조건에서는 피험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실험자는 피험자의 이야기에서 질문할 사항을 찾는 것처럼 이야기의 내용을 메모하였다. 통제조건에서는 실험자는 아무런 메모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였다. 피험자의 이야기는 모두 녹음되었다.

피험자가 네 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친 다음에, 피험자에게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질문지와 상태불안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때에 평가조건의 피험자에게는 그 다음에 피험자가 한 이야기들과 피험자의 인상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해 주었다. 피험자가 상태불안 척도 및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질문지를 모두 응답하면, 실험에 대한 피험자의 의문점을 질문하도록 하고, 실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준 다음에, 이번 실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다른 학생들에게 실험과정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실험을 마쳤다.

종속변인

상태불안 점수

사회불안의 주관적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한국판 STAI-Y형의 상태불안 척도 점수이다.

발언시간

사회불안의 정도를 나타내는 행동 측정치의 하나로써, 피험자가 이야기한 발언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였다. 발언시간을 측정한 사람은 피험자가 어떤 집단과 어떤 조건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시간을 재었다. 발언시간은 녹음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험자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여 마지막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에서 질문시간이나 긴 침묵시간을 제외하고, 네 가지 이야기를 말 한 시간을 초시계로 재어 산출하였다.

발언속도

사회불안의 정도를 나타내는 다른 행동 측정치로서, 피험자의 발언속도를 산출하였다. 발언속도는 '1분당 발언한 단어수'로 정의하였다. 발언속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피험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여 끝마칠 때까지 발언한 총 단어수를 셈하였다. 발언 단어수를 셈한 사람들은 피험자가 어떤 집단과 어떤 조건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어수를 셈하였다. 발언속도는 총 단어수를 발언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분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내용 적절성

사회불안의 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행동 측정치로서, 피험자가 말한 이야기의 내용 적절성 평정치를 산출하였다. 내용 적절성은 피험자의 이야기가 "피험자가 '독립성이 강한 사람' 또는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얼마나 적절한 내용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11점 척도(0; 전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10; 매우 적절한 내용이다)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자는 모두 2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심리학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두 평정자는 연구자와 함께 내용 적절성의 평정 기준에 대해 합의하고 평정 연습을 한 다음에, 본 실험의 피험자의 이야기 내용에 대해 평정하였다. 평정자는 피험자가 어떤 집단과 어떤 조건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야기의 내용 적절성을 평정하였다. 내용 적절성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74이었다. 두 평정자가 각각 평정한 평정치의 평균을 각 피험자가 한 이야기의 내용 적절성 측정치로 삼았다.

결 과

피험자 성향에 대한 예비분석

먼저 집단-조건별로 피험자들의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 및 성향적 사회불안이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1은 집단-조건별 자기제시 동기 척도 및 대인관계 불안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변량분석 결과,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에서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자기제시 동기 척도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F(1, 38) = .00, m$,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도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자기제시 동기 척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38) = .21, m$. 그리고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평가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통제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평가조건 및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통제조건 사이에 대인관계 불안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자기제시 동기 척도 및 대인관계 불안 척도 점수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조건	SPMS		IAS	
	M	SD	M	SD
높은 집단-평가조건	107.10	7.09	43.50	7.64
높은 집단-통제조건	107.05	7.13	42.95	6.60
낮은 집단-평가조건	70.10	9.43	41.60	5.65
낮은 집단-통제조건	71.40	8.40	41.20	5.73

SPMS = 자기제시 동기 척도, IAS = 대인관계 불안 척도

$F(3, 76) = .50, ns$. 이것은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평가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통제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평가조건 및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통제조건인 네 집단 사이에 성향적 사회불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피험자의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의 집단-조건 별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집단-조건별로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의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 = 9.75, p < .01$. 또한 평가조건의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 = 4.33, p < .05$.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간 평가를 예상하게 하는 처치가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를 높게 하는데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6) = 1.08, ns$. 참고로 평균간 개별비교를 한 결과,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의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 = 9.75, p < .01$. 그러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76) = 1.08, ns$. 그리고 평가조건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의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자기제시

표 2.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조 건			
	평가조건		통제조건	
	M	SD	M	SD
자기제시 동기 높은	14.80	3.37	12.70	3.15
자기제시 동기 낮은	12.00	2.99	11.30	2.45

표 4. 발언시간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단위 초)

집단	조 건			
	평가조건		통제조건	
	M	SD	M	SD
자기제시 동기 높은	220.60	91.10	254.15	103.65
자기제시 동기 낮은	250.55	92.56	276.75	114.29

동기 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17.33, p < .01$. 또한 통제조건에서도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의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4.33, p < .05$.

상태불안 점수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피험자가 경험한 상태불안 점수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집단-조건별로 상태불안 점수가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의 상태불안 점수가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11.05, p < .01$. 또한 평가조건의 상태불안 점수가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4.87, p < .05$. 그러나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고 경향성만을 보였다, $F(1, 76)=3.93, p < .10$. 예언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간 개별비교를 한 결과,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의 상태불안 점수가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17.56, p < .01$. 그러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상태불안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76)=.05, ns$. 상태불안 점수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는 예언1을 지지하는 것이다. 참고로 평균간 개별비교를 한 결과, 평가조건에서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의 상태불안 점수가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76)=28.17, p < .01$. 그러나 통제조건에서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상태불안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76)=1.80, ns$.

표 3. 상태불안 점수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조 건			
	평가조건		통제조건	
	M	SD	M	SD
자기제시 동기 높은	51.65	7.13	44.15	9.56
자기제시 동기 낮은	42.15	8.54	41.75	6.41

발언시간

사회불안의 행동 측정치의 하나로서, 초단위로 측정된 발언시간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집단-조건별로 발언시간이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발언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76)=1.36, ns$. 또한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도 발언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76)=1.76, ns$. 그리고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6)=.03, ns$. 발언시간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예언 2를 기각하였다.

발언속도

사회불안의 다른 행동 측정치인 발언속도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집단-조건별로 발언속도가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서 발언속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76)=.66, ns$. 그런데 평가조건의 발언속도가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빨랐다, $F(1, 76)=4.24, p < .05$. 그리고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76)=4.75, p < .05$. 예언

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간 개별비교를 한 결과,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의 발언속도가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느렸다, $F(1, 76)=18.01, p < .01$. 그러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발언속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76)=.01, ns$. 발언속도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 는 예언 3을 지지하는 것이다. 참고로 평균간 개별비교를 한 결과, 평가조건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발언속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76)=2.21, ns$. 그런데 통제조건에서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의 발언속도가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빨랐다, $F(1, 76)=8.94, p < .01$.

내용 적절성

사회불안의 또 다른 행동 측정치인 이야기의 내용 적절성 평정치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집단-조건별로 내용 적절성 평정치가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서 내용 적절성 평정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76)=2.30, ns$. 그런데 평가조건의 내용 적절성 평정치가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낮

표 5. 발언속도의 집단-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분당 단어수)

집단	조 건			
	평가조건		통제조건	
	M	SD	M	SD
자기제시 동기 높은	77.75	10.14	88.45	12.12
자기제시 동기 낮은	81.20	10.97	80.91	11.76

표 6. 내용 적절성 평정치의 집단 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조 건			
	평가조건		통제조건	
	M	SD	M	SD
자기제시 동기 높은	5.10	1.81	6.62	1.41
자기제시 동기 낮은	6.17	1.61	6.57	1.31

았다, $F(1, 76)=8.50, p < .01$. 그리고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고 경향성만을 보였다, $F(1, 76)=3.34, p < .10$. 예언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간 개별비교를 한 결과,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의 내용 적절성 평정치가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F(1, 76)=22.35, p < .01$. 그러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내용 적절성 평정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76)=1.18, ns$. 내용 적절성 평정치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는 예언4를 지지하는 것이다. 참고로 평균간 개별비교를 한 결과, 평가조건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의 내용 적절성 평정치가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F(1, 76)=11.08, p < .01$. 그러나 통제조건에서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내용 적절성 평정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76)=.10, ns$.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제시 모형(Leary & Kowalski, 1995; Schlenker & Leary, 1982)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높은 자기제시 동기가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간 평가가 상

황적 사회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간 평가가 예상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가 더 높아지고, 사회불안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였다.

피험자들의 성향에 대한 예비분석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평가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통제조건,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평가조건 및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통제조건 사이에 성향적 사회불안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본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집단-조건 별로 편파적으로 할당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종속변인들의 집단-조건별 차이는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간 평가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이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 비해서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통제조건에 비해서 평가조건에서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대인간 평가를 예상하게 한 처치가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를 높게 하는데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가 개인의 성향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 Gregorich 등(198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상황적 자기제시 동기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제시 이론(Leary & Kowalski, 1990; Schlenker & Weigold, 1992) 및 자기제시 모형(Leary & Kowalski, 1995a, 1995b; Schlenker & Leary, 1982) 으로부터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의 주관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상태불안 점수에서 가정된 예언이 지지되었다. 즉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통제조건에 비해 대인간 평가조건에서 상태불안 점수가 더 높았으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은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태불안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과는 달리, 대인간 평가에 의해 주관적 불안을 높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자기제시 동기가 사회불안의 원인이라는 자기제시 모형의 가설에 잘 부합된다. 본 연구 결과는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가 사회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관적 상태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불안의 행동 측정치들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사회불안의 행동 측정치의 하나인 이야기의 내용 적절성 평정치에서 가정된 예언이 지지되었다. 즉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통제조건에 비해 대인간 평가조건에

서 내용 적절성 평정치가 더 낮았으나,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은 평가조건과 통제조건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불안의 다른 행동 측정치인 발언속도에서도 가정된 예언이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이 평가조건에서 발언을 느리게 해서서라기보다는, 통제조건에서 발언을 빠르게 한 결과 때문이다. 따라서 발언속도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

사회불안의 또 다른 행동 측정치인 발언시간에서는 가정된 예언이 기각되었다. 발언시간에서 가정된 예언이 기각된 결과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짧은 발언시간을 보여준 DePaulo 등(199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두 가지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피험자들이 대인간 평가 상황에서 주관적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지만, 그것이 발언시간을 줄일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성향적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인관계 불안 점수가 중간정도인 사람들이 많았다. 피험자들의 이런 특성 때문에 평가조건에서 상황적 사회불안이 높게 유발되지 않았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대인간 평가의 예상이 주관적 불안감을 높이는 영향을 주었으나, 발언시간을 줄일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하였을 수 있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불안을 느끼지만, 그 주관적 불안이 외현적 행동으로 표시될 정도로 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 사회불안을 높게 하는 처치가 대인적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었다(Alden, 1987; Woody, 1996).

둘째,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성향적 자기제

시 동기에 의해서 분류되었다.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제시하려는 더 많은 욕구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높은 자기제시 욕구 때문에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실험과제의 요구대로 이야기를 길고 생생하게 하려는 경향이 더 컸을 것이라고 보아진다. 피험자들의 이러한 경향이 발언시간에서 예언된 결과를 나오지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이 평가조건에서 상태불안을 더 많이 느끼어 발언을 적게 하도록 영향을 주는 한편, 높은 자기제시 동기가 더 길게 이야기하도록 작용하여 서로 효과를 상쇄시켰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언시간에서 예언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불안의 행동적 측정치인 발언속도에 대한 분석결과가 일견 예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해석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언대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통제조건에 비해 평가조건에서 더 느린 발언속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평가조건에서 발언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통제조건에서 발언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가조건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발언속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데에서 드러난다. 이 결과는 사회불안과 발언속도의 관계만으로는 해석되기 어렵다. 이 결과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자기제시에 관심이 많으므로, 실험자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경향이 컸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실험과제에 맞추어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려다보니, 발언속도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의 이런 행동 경향이 통제조건에서는 그대로 나타난 반면에, 평가조건에서는 높은

사회불안이 이를 방해하여 발언속도가 빨라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발언속도에서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인 이유는, 이야기 범주별로 발언속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비교적 자신이 독립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피험자들이 독립적인 내용의 이야기와 의존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의 마음 상태가 서로 다르고, 이 때문에 이야기 내용에 따라서 발언속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 범주별로 발언속도를 측정하였다면, 발언속도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발언속도의 해석하기 어려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불안의 행동적 측정치인 내용 적절성 평정치에서 예언이 지지된 결과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이 평가조건에서 주관적 불안을 높게 경험하였으나, 발언을 적게 하지는 않은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흥미롭다. 이 결과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피험자들이 평가조건에서 불안을 높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실험과제의 요구대로 발언을 길게 하려고 하였으나, 높은 불안에 의해 이들의 이야기가 부적절한 내용이 되도록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사회적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조할 때 (Alden & Wallace, 1995; DePaulo et al., 1990; Stopa & Clark, 1993), 이 결과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평가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불안 집단과 유사하게 사회불안을 높게 경험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회적 수행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불안의 행동측정치들이 예언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은 이유로 피험자집단의 특성을 생

각할 수 있다.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성향적 사회불안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피험자들을 선정하다보니, 두 집단 모두 대인관계 불안 점수가 중간에 가까운 피험자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즉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도 성향적 사회불안이 높지 않은 피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피험자들의 특성 때문에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이 대인간 평가조건에서 행동적 반응까지 나타날 정도로 사회불안을 높게 경험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정서나 태도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DePaulo, 1992).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주관적 불안감을 느꼈지만, 행동적 반응은 다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행동적 반응을 배제하고 사회불안을 인지적-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는 Leary 등(Leary, 1982; Leary & Kowalski, 1995a; Schlenker & Leary, 1982)과 Leitenberg(1990)의 관점에 의거하면, 본 연구 결과는 자기제시 동기가 사회불안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불안에 대해 Leary 등과는 다르게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Beidel, Turner 및 Dancu(1985)는 사회상황에서의 높은 각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 등 사회불안의 정의에 생리적 반응, 인지적 반응, 정서적 반응 및 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였다. 행동적 반응을 배제하고 인지적-정서적 반응만으로 사회불안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제시 모형에서 제안한 사회불안의 두 요인들 중 자기제시 동기 요인만을 검토하였다. 이는 그동안 사회불안에 대한 이전 연

구들에서 자기제시 기대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많았으나, 자기제시 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의 상호작용이 사회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다른 제한점은 피험자들이 모두 여자대학생들이었다는 것이다. 사회불안이나 자기제시 동기에서 남녀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지적인 선행연구는 없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가 남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이나 임상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은 대인간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주관적 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고, 이들이 말한 이야기의 내용 적절성이 더 낮았다. 반면에 자기제시 동기가 낮은 집단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불안을 인지적-정서적 반응만으로 정의하는 입장을 따른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자기제시 동기가 사회불안을 높게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자기제시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재 (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4, 73-81.
- 김남재 (1998).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 (1996). Spielberg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 지: 건강, 1, 1-14.
- Alden, L. E. (1987). Attributional responses of anxious individuals to different patterns of social feedback: Nothing succeeds like impro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0-106.
- Alden, L. E., & Wallace, S. T. (1991). Social standards and social withdrawa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 85-10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Washington, DC: Author.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ruch, M. A., Gorsky, J. M., Collins, T. M., & Berger, P. A. (1989). Shyness and sociability reexamined: A multicomponent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904-915.
- Burgio, K. L., Merluzzi, T. V., & Pryor, J. (1986). Effects of performance expectancy and self-focused attention o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6-1221.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DePaulo, B. M. (1992). Nonverbal behavior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203-243.
- DePaulo, B. M., Epstein, J. A., & LeMay, C. S. (1990). Responses of the socially anxious to the prospect of interperson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8, 623-640.
- Heinrichs, N., & Hofman, S. G. (2001). Information processing in social phobia: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751-770.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34-47.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a).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b).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Leitenberg, H. (1990). Introduction. In H. Leitenberg (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Plenum Press.
- Mahone, E. M., Bruch, M. A., & Heimberg, R. G. (1993). Focus of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negative self-thoughts and perceived positive attributes of oth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209-224.
- Meleshko, K. G. A., & Alden, L. E. (1993). Anxiety and self-disclosure: Toward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000-1009.
- Neal, J. A., & Edelman, R. J. (2003).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Toward a developmental profi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761-786.
- Rapee, R. M. (1995). Descriptive psychopathology of

-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41-756.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8.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5). Social anxiety and communic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4, 171-192.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2). Interpersonal processes involving impress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 133-168.
- Schneier, F. R., Joh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epidemiological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282-288.
- Spie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Form 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purr, J. M., & Stopa, L. (2002).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phobia and social anxiet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947-975.
- Stopa, L., & Clark, D. M. (1993).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255-267.
- Woody, S. R. (1996). Effects of focus of attention on anxiety level and social performance of individuals with social phobia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61-69.

원고접수일 : 2004. 4. 13

게재결정일 : 2004. 8. 4

Effects of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Evaluation on Social Anxiety

Kim, Nam Jae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evaluation on situational social anxiety. It was hypothesized that people with high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who are faced with the prospect of interpersonal evaluation will experience high social anxiety. Subjects who scored high or low on a measure of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were asked to tell four stories about themselves to an interviewer in the anticipated-evaluation condition or in the anticipated-no-evaluation condition. As predicted, subjects with high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reported higher state anxiety in the evaluation condition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but subjects with low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didn't. Stories of subjects with high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were less appropriate in the evaluation condition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but subjects with low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didn't. Inconsistent results were found in speech duration and speech speed.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that social anxiety is defined as cognitive-affective responses excluding behavioral respons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is an important cause of social anxiety.

Keywords : Social Anxiety, Self-Presentational Model,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Interpersonal Evaluation